

## 중국 원조의 결정요인 분석: 모잠비크 사례를 중심으로\*

유성훈 ■ 연세대학교\*\*  
임태우 ■ 경기대학교\*\*\*  
김이연 ■ 경기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잠비크의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대외 원조 배분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 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선구적인 연구인 드레허 외(2018)는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공여국들의 원조 배분 요인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원조는 공여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원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모잠비크 사례를 통하여 중국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로서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해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ODA가 모잠비크에 대한 수출에 영향이 있으나 반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드레허 외의 주장과는 다르게 OOF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간접시설, 농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별로 원조를 살펴본 결과 원조의 제공 목적이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 원조, 원조 배분, 모잠비크, 그랜저 인과검정

\* 논문에 대하여 건설적인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4단계 BK21 사업인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E-mail: db7070@naver.com)

\*\*\* 공동저자.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부생(E-mail: taewoozang2@naver.com)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제학전공 교수  
(E-mail: dianakimyy@hotmail.com)

## I. 서 론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대외 원조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김현정·박선화 2016). 몇몇 학자들은 중국이 대외 원조를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중국은 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의 발전이 아니라 자국 기업들을 위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원조를 대가로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Naim 2007). 반면 중국의 원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은 중국이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원조모델을 제시하여 공여국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공여국의 인프라 시설 및 보건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김현정·박선화 2016; Manning 2006).

중국 원조에 대한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 원조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윌리엄 & 메리 대학교(College of William & Mary)의 AidData는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중국 원조의 특징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 중 드레허 외(2018)의 연구는 많은 시선을 끌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원조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집중하며 기존 연구들에서 중국 원조에 대한 논의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드레허 외(2018)은 횡단면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ODA는 외교적 이익에 따라 배분되는 반면 OOF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중국의 원조가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하여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수원국에 대한 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기존의 비판적인 시각은 자료 부족과 대외 원조의 종류를 구분지어 그 특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고, 이러한 비판은 ODA보다 OOF에 더 적합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가 간 연구의 결과를 사례 분석을 통하여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모잠비크에 대한 중국의 원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잠비크는 중국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 및 합의를 체결한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이며, 1992년 내전이 종료된 이후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원조 배분 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드레허 외(2018)가 주장한 대로 ODA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배분되고, OOF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분되는지 분석하여 최근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중국 원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원조에 관한 선행연구 중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원조 공여국의 원조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중국 원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중국 원조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 IV장은 중국과 모잠비크의 관계, V, VI장에서는 중국의 모잠비크 원조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본론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중국 원조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원조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하는 동기 혹은 원조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원조의 동기를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배분과 공여국의 이익 추구에 따른 배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순학·이홍식 2012; Alesina & Dollar 2000; Guillon & Mathonnat 2019; Trumbull & Wall 1994; Noh & Heshmati 2017).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을 수원국의 필요에서 찾는 연구들에 따르면 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원조는 수원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원조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호플러와 아우트럼(2011)의 연구는 공여국들이 원조 배분에 있어 수원국의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불안정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이 원조 배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나스(2008)의 연구에 따르면, 수원국의 영유아 사망률,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이 높은 국가일수록 원조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른 원조 배분은 양자원조보다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자원조에서 더 많이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Neumayer 2003).

이와 달리 원조가 공여국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원조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여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이다. 알레시나와 달러(2000)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공여국의 식민지 여부, 정치적 동맹 관계, UN 내에서의 투표 행태 등이 공여국의 원조를 배분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을 밝혀냈다. 더 나아가 원조 배분은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공여국과 수원국의 무역 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원조는 수원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조가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영향이 없다는 주장(Lloyd et al. 2000; Osei et al. 2004)과 수원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주장(Wagner 2003) 및 수원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Tajoli 1999) 등 세 가지 주장으로 나뉜다. 원조가 공여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경로로는, 원조의 일부를 공여국 수출품 구매에 쓰도록 규정하는 직접적인 경로(Lloyd et al. 2000; Wagner 2003)와 공여국과 수원국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공여국 상품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로 구분될 수 있다(이순하·이홍식 2012). 다른 선행연구는 원조 1불 증가는 1불 정도의 수출 증가 효과 밖에 없어, 원조가 공여국 수출 증가의 목적보다는 양국의 유대관계 강화 등의 간접적 목적의 영향이 2배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Arvin & Baum 1997; Wagner 2003). 또한, 원조와 공여국 수출에 관한 연구들은 두 변수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을 뿐, 인과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Noh & Heshmati 2017). 원조와 공여국의 수출은 동시(simultaneity)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원조가 공여국 수출에 영향을 주거나 수출이 원조에 영향을 주는 인과성을 가질 수도 있다. 수와-아이젠만과 베르디에(2007)는 원조는 정치 및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Ⅲ. 중국 원조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이와 같은 원조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속해있는 선진국들을 위주로 진

행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기존 서구 공여국들과 상이한 특징을 가진 신흥공여국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 원조의 규모를 급격히 확대해나가며 기존 서구 국가들이 중심이 되었던 국제원조체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원조 배분의 행태 및 지원 동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원조는 195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 지원에 대항하여 북한이나 베트남 등에 대한 군사 및 식량 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양동권·정종필 2020; Cheng et al. 2019). 당시 중국의 원조 지원은 수원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 원조의 특징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1964년에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가 가나에 방문하여 수원국들의 주권 독립, 무간섭 원칙과 같은 중국 원조 지원에 관한 원칙을 밝히며 남남협력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중국 원조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상무부, 외교부, 국가외환관리국, 농업부, 교육부 등과 같은 원조와 관계된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994년에는 원조 제공에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중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과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원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원국 이익 중심보다는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Carter 2017). 2000년대 이후, 중국의 원조는 해외투자 및 진출을 강조하는 “저우추치(走出去, Going out)” 정책을 기반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원조 규모가 29.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Tang et al. 2013). 특히, 중국의 원조는 2013년 후반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200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원조를 지원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는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와 달리 수원국의 국민들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원조를 지원하는데 있어 수행하는데 있어 수원국의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수원국의 부패한 정권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수원국의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는 중국의 원조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에 따라 수원국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국가의 발전을 억제시켜 ‘불량원조(rogue aid)’라고 지칭되기도 한다(Naim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원조를 배분하는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Bräautigam 2011).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중국 원조의 제공 동기나 배분 방식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몇몇 학자들은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soft power)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Albert 2017; Corkin 2014; Shambaugh 2015). 중국은 원조를 통하여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원국에 투사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코르킨(2014)은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원조를 배분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조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원조를 활용하고 있다(Biddick 1989). 또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측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기도 한다(이재영·신정섭 2020). 마지막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천연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원조 제공을 할 때도 이러한 자원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하다(Kobayashi 2008). 국내 연구로는 정수나·김영완(2017)이 남태평양 8개 도서국에 대한 중국 원조를 분석하여 원조 공여 동기가 이 지역 수산업과 잠재적인 심해 저광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원조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여 자신들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Brant 2013). 또한, 중국의 원조는 국유기업과 수원국 기업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원조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원조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증진은 중국 원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서 드레허와 폭스(2015)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원조가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배분되기는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원조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량원조’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드레허 외(2018)는 중국 원조를 ODA와 OOF로 구분하여 중국과의 무역 양과 원조 수원국의 석유 생산 여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기타 공적자금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주장했다. 드레허 외(2018)의 이와 같은 분석은 국가 간의 비

교 연구를 통한 결과인데, 한 국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ODA는 정치적 목적으로 OOF는 경제적 목적으로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무역 양이 원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서구 국가의 기존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조와 무역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 때문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 무역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중국의 원조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은 농업, 사회간접시설, 교육, 보건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길론과 매튜나트(2019) 등의 주장대로 수원국의 필요 때문에 지원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사회간접시설, 보건, 교육 원조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중국의 원조 배분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가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은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석탄,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중국이 아프리카에 다량의 원조를 지원하게 만들고 있다(이재영·신정섭 2020; Butts & Bankus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모잠비크는 중국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 협력 및 합의를 체결한 첫 번째 아프리카 국가이며, 수원국들 중에서 중국의 원조를 받는 양이 43개국 중 11위로 많은 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중국의 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sup>1)</sup> 또한, 모잠비크는 분야별 원조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공개하는 편이기 때문에 중국 원조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원조와 공여국 수출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 및 농업, 사회간접시설, 교육, 보건 분야에 따른 중국 원조 동기를 모잠비크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드레허 외(2018)의 ODA와 OOF의 원조 결정요인에 관한 주장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중국 원조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대아프리카 평균 제공액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33억 불이며, 모잠비크에 대한 지원액도 33억 불 정도였다.

#### IV. 중국과 모잠비크 관계

1975년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모잠비크는 풍부한 광물, 에너지 및 농업 자원으로 인하여 성장 가능성에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1992년 내전의 종료 이후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자 국제사회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Boston 2010; Chichava et al.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모잠비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양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잠비크는 서구 및 중국에서 원조 배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과 모잠비크의 관계는 모잠비크가 1960년대 독립운동을 할 때 모잠비크 해방전선(Liberation Front of Mozambique, FRELIMO)에 중국이 정치·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다(Chichava 2014). 모잠비크 해방전선의 리더이자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모라 마첼(Samora Machel)이 1975년 중국을 방문하여 모잠비크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Njal 2012).

1980년대 이후 중국과 모잠비크는 정치적 관계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모잠비크는 내전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브레튼우즈 체제를 받아들이고 1987년에 경제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 헌법 개정 및 1992년 내전 종결 후 1994년 선거를 통해 민주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잠비크는 자신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광물 및 천연자원·에너지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 원조가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Amanor & Chichava 2016). 중국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와 천연자원 및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 때문에 모잠비크와의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두 국가는 본격적으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 중국과 모잠비크는 공동 경제 및 무역 위원회 설립을 합의하고 무역 및 투자 보호에 관한 몇몇 협정을 체결했고 2004년 이후 다양한 경제 및 정치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2007년 후진타오 주석은 모잠비크를 방문했을 때, 농업, 기술, 교육, 보건, 경제 및 자원 개발 분야에 1



억 7천만 불 규모 대출형식의 지원을 약속했다(Roque 2009). 중국과 모잠비크 간 교역량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대모잠비크 수출액은 2006년 1억 불을 넘었고, 2008년 2억 5천 불을 넘었으며, 2009년에 3억 불을 초과했다(Chichava 2014). 2016년 중국과 모잠비크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고,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농업, 제조업, 광업, 전기통신 및 디지털 티비 분야 관련 10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모잠비크에 투자하고 있다(Wang 2020). 예를 들어, 중국은 북부 루부마 지역 4지구에서 천연가스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1지구에서는 가스를 구매하고 있고, 최근까지 주요 도로, 다리, 항구, 철도를 건설했으며 디지털 티비 변환 및 모바일 네트워크 프로젝트(#1202 OOF, #40730 ODA)<sup>2)</sup> 설치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 티비 변환 프로젝트는 중국의 수출입은행과 스타타임즈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완성 시 모잠비크 라디오와 티비 수신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지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마푸투-카렘베 다리(#1240 ODA), EN6 고속도로(#31066 ODA), 나갈라 선 철도, 베이라 항구(#31137 OOF) 등과 같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하였거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모잠비크는 서로 활발하게 무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 중국의 대모잠비크 수출액은 거의 20억 불에 이른 반면, 모잠비크의 대중국 수출은 2019년 3억 불을 조금 넘어 심각한 무역적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잠비크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광석 슬래그와 재, 목재, 시멘트 및 석회, 농수산물 등이 있다. 반면 중국이 모잠비크에 수출하는 품목은 2020년 기준 전자제품이 2억 불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류와 보일러 및 원자로, 플라스틱, 신발, 자동차류가 그 뒤를 이었다.<sup>3)</sup>

## V. 연구설계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잠비크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원조 배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경험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원

2) “#”은 AidData에서 제공하는 중국 원조 데이터에서 프로젝트 ID를 의미한다.

3) 중국과 모잠비크의 무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tradingeconomics.com/mozambique/exports/china>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한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윌리엄 & 메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AidData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국 원조 자료 중에서 모잠비크에 대한 원조 70개 사례를 대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해 무역과 원조 배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농업, 사회간접시설, 교육, 보건 등의 분야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중국 원조가 배분되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sup>4)</sup>

중국의 원조는 OECD DAC에서 정의하는 원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분되어 배분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원조를 연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AidData는 중국의 원조를 사업 단위로 구분하고 이를 원조의 목적, 양허성, 수원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일반적인 서구 국가들의 원조와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1) 사업의 주요 목적이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있을 경우, (2) 보조금, 기술 지원, 장학금, 채무 면제, 보조금이 최소 25%인 대출 등이 포함된 양허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 (3) OECD DAC이 설정한 수원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우 OECD DAC에서 정의하는 ODA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OOF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OECD DAC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AidData를 통한 중국 원조에 관한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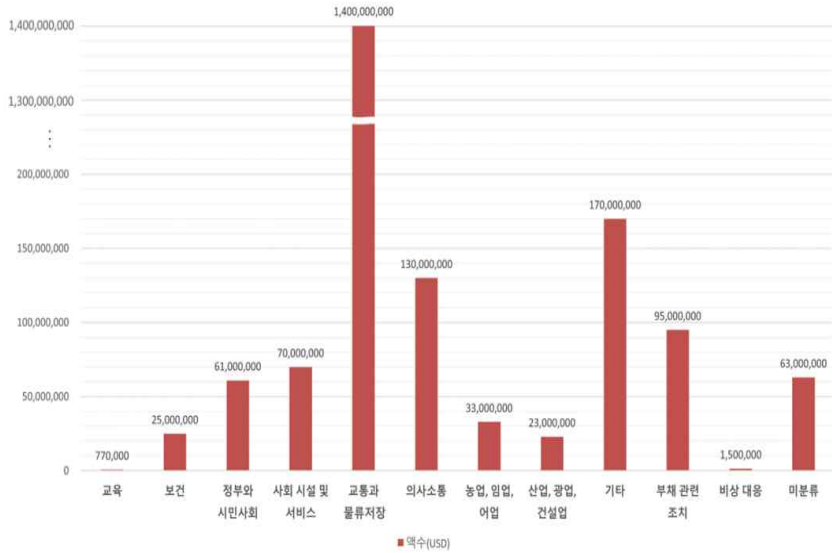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모잠비크 원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본격적으로 모잠비크에 원조를 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모잠비크에 대한 ODA는 다리 건설 등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출이 14억불 이상으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했으며, 농업, 교육, 보건 및 다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원 및 대출이 1억 7천불, 컴퓨터와 전기통신 시설을 위한 대출 등이 1억 3천불로 사회간접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가 원조 제공의 상위권을 차지했다(<그림 1> 참고). 구체적으로, 대모잠비크 ODA 중 무상원조는 9천만불로 4%에 그쳤으며 대출형식의 유상원조는 18억불로 91%에 달하였다. OOF의 경우 다리나 공항과

4) 중국의 원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www.aiddata.org/data/aiddatas-global-chinese-development-finance-dataset-version-2-0>에서 확인 가능하다.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약 13억 불로 가장 많은 지원이 있었으며, 농업 및 임업 등에 약 1억 불이 지원되었다. OOF 총액 약 14억 불 중 약 88%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무상원조는 공자학원 설립, 한 가지 사례가 있었으며, 대출이 88%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ODA나 OOF 양 분야에서 80~90%의 원조가 무상지원보다는 대출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중국의 분야별 대모잠비크 ODA 할당액



출처: AidData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원조 배분에 관하여 드레허 외(2018)는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할수록 수여국에 대한 OOF가 증가하는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OOF는 경제적 목적으로 배분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의 원조에 관한 선행연구는 원조 때문에 공여국의 수출이 증가하는지 공여국의 무역이익 때문에 수여국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는지에 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Lloyd et al. 2000). 중국의 원조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증가함에 따라 그 결과로 양국의 무역이 증가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은 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그런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하여 무역과 원조 사이의 인과관계

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서로 영향이 있음을 나타낼 뿐, 두 변수 간 인과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정이 필요하다(Gujarati 2004).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이란 두 변수 간 인과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다.<sup>5)</sup> 구체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두 변수 X와 Y 중 어떠한 변수가 원인 변수가 되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X가 Y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검정하는 것이며, 분석 결과로 X에서 Y 방향으로 인과관계, Y에서 X 방향으로 인과관계, 서로 영향이 없는 독립적 관계, 혹은 쌍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존재 등 4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Y를 예측할 때, X와 Y의 과거 값을 사용하는 것이 Y의 과거 값만을 사용할 때보다 정확하면 X에서 Y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먼저 VAR 분석을 실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표본은 ODA와 OOF 각각의 VAR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면 관계상 VAR 분석 결과의 첨부는 생략하고 VAR 분석에 기초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의 결과만 첨부한다.

이러한 검정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국의 대모잠비크 ODA는 중국의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가설 2: 중국의 대모잠비크 수출은 모잠비크에 대한 ODA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가설 3: 중국의 대모잠비크 OOF는 중국의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가설 4: 중국의 대모잠비크 수출은 모잠비크에 대한 OOF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5) 이러한 검정을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Y_t = \sum_{i=0}^m \alpha_i X_{t-i} + \sum_{j=0}^m \beta_j Y_{t-j} + \epsilon_{1t} ,$$

$$X_t = \sum_{i=0}^m \lambda_i X_{t-i} + \sum_{j=0}^m \delta_j Y_{t-j} + \epsilon_{2t}$$

〈표 1〉 ODA와 무역에 대한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

분류	시차	원조 → 수출		수출 → 원조	
		F값	p값	F값	p값
ODA	1	7.072	0.022	0.092	0.768
	2	2.428	0.150	0.242	0.790

〈표 2〉 OOF와 무역에 대한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

분류	시차	원조 → 수출		수출 → 원조	
		F값	p값	F값	p값
OOF	1	4.045	0.115	3.579	0.132
	2	0.908	0.596	1.248	0.535

<표 1>과 <표 2>는 위 가설들을 토대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한 결과이다. 드레허 외(2018)의 연구는 1년의 시차(1 year lagged) 영향을 살펴보고 있지만, 무역과 원조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2년의 시차(2 year lagged)까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1>을 보면, 원조가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1년의 시차의 경우 기각되고 있지만 2년의 시차에서는 기각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ODA가 모잠비크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설 2의 경우 모잠비크와의 무역은 1년의 시차와 2년의 시차에서 모두 ODA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조와 수출 사이의 역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드레허 외(2018)의 주장과 달리 ODA 역시 중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OOF와 수출 사이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드레허 외(2018)이 주장하는 “OOF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는 주장은 모잠비크의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중국의 원조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모잠비크의 사례에서는 중국의 원조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AidData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국의 원조 사업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농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별 원조에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2차 자료들을 분석한 후 중국의 원조가 모잠비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원조 배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VI. 중국의 대모잠비크 원조 사례 분석

### 1. 사회간접시설 원조

모잠비크는 80만 km<sup>2</sup>로 한반도 약 8배 크기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큰 도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잠베지 강이 영토를 남북으로 나누는데 북쪽 인구는 분산되어 거주하는 편이며 남쪽 인구는 도시나 주요 교통망이 있는 곳에 밀집하여 거주한다(Dominguez-Torres & Briceno-Garmendia 2011).

경제성장을 위해서 넓은 영토를 연결하는 사회간접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서 1992년까지 이어진 모잠비크 내전 동안 대량 파괴된 사회간접시설은 경제발전엔 큰 걸림돌이었다. 최빈곤국으로 분류되었던 모잠비크에 해외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중국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은 모잠비크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협력국이 되었다(Roque 2009).

중국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5년간 모잠비크 사회간접시설의 60-70% 투자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7년의 경우 도로의 1/3이 중국 자본으로 건설되었으며, 8천만 불 정도의 마푸투(Maputo), 베이라(Beira), 켈리마네에(Quelimane) 위생 및 수도관 건설을 위한 12개 재건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에 의해 진행되었다(Bosten 2010; Correia 2010). 중국 국유회사인 허난 국제협력 그룹(China Henan International Cooperation Group, CHICO)은 막싱(Muxungwe)에서 인초페(Inchope)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154km의 도로를 건설하였고, 마푸투의 인코마티(Incomati) 강에 홍수로 파괴된 다리를 300미터 길이의 새로운 무암바(Moamba) 다리를 지었다(Roque 2009). 중국수출입은행은 음판다 은쿠와(Mphanda Nkuwa)지역에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지연

되어 2024년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90%의 전력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는 모잠비크에게 중요한 사업이다(Jansson & Kiala 2009).

모잠비크는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스와티니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교역을 위해 도로 및 철로 등을 갖추고 있으나 운송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육로의 경우 지방도로를 확장하여 도시와의 연결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시내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로가 개발되지 않은 비포장도로가 많아 도로 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우기철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매년 있다(Dominguez-Torres & Briceno-Garmendia 2011). 중국은 마푸투 순환도로(#30376, ODA), 베이라-마시판다 도로(#31066, ODA), 인초페-카이아 도로(ID #31133, OOF), 쿠암바-마루빠 도로(ID #31134, OOF), 모암바-만자카제 도로(ID #31135), 푸찌와 나마파자 간 도로(ID #31136, OOF), 키무아라-나마쿠라 도로(ID #31137, OOF), 마코사에서 남북을 잇는 EN1도로(ID #31138, OOF), 베네-쥬보 도로(ID #31132, OOF)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잠비크 국영 항만철도공사(CFM)는 모잠비크 해안을 중심으로 7개 항구와 8개 철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3대 항구는 수도 마푸투의 (Maputu) 마푸투 항구, 나갈라(Nacala) 항구, 베이라(Beira) 항구이며 마푸투 항구는 물동량이 가장 많으며, 나갈라 항구는 석탄 수출을 주로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광물 수출과 주변국과의 교류를 위해 경쟁력을 더 갖출 필요가 있다(Dominguez-Torres & Briceno-Garmendia 2011). 중부 베이라 항구는 수심이 얇고 우기철 접근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수출입은행은 2014년 베이라 항구에 1억 2천만 불을 투자하여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항구의 저장 용량을 향상시켰다(#41581 OOF). 8개의 철도선이 있으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선은 없어, 증가하는 석탄 생산을 통한 주변국과의 교류를 위해 철로의 증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를 잇는 철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Hebert 2018).

첸(2018)은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원조도 사실상 대출 및 이자상환으로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원조로 건설한 항구나 댐을 통한 사용료로 대출 상환을 기대한다 해도,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이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 중국에 대한 대출 상환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전 수원국 정부로부터 대출 상환을 보장받거나,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묶어서 한 곳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익이 나는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상환받기도 한다(Xu 2017). 혹은 중국은 상품부채(commodity-backed)

대출을 사용하여 원자재로 대출을 상환 받는 계약을 하기도 하나 원자재 가격 하락의 경우, 상환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다(Bräutigam & Gallagher 2014). 중국 원조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외교적 목표, 즉, 안보 및 전략적인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Baldwin 1985; Norris 2016).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가개발은행 등을 통한 원조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Norris 2016). 모잠비크는 인도양의 긴 해안가를 가진 해안 국가인데 중국이 인접국가인 잠비아나 짐바브웨에 접근해야 할 때 모잠비크를 거쳐서 간다(Chaudhury 2021). 중국이 모잠비크에서 미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거나 혹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모잠비크에 전략적으로 원조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모두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선행연구들이 개도국에서의 중국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들이 이익을 창출하지 않음에도 중국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원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AidData에서 제공하는 중국 원조 자료 중 모잠비크와 관련된 70개 사례 중에서 사회간접시설 지원은 20개의 사례가 있으며 ODA는 11개, OOF는 9개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전체 액수는 ODA가 약 17억 불, OOF는 13억 불로 ODA가 더 많다. 중국 ODA 자료 중 상세한 내용 파악이 가능한 2011년의 경우 중국 정부는 마푸투부터 카템베(Catembe)까지 다리 건설을 모잠비크 정부와 합의했다. 자금은 중국수출입은행에서 출자했으며 처음에는 한도가 7천 200만 달러에서 6억 8160 불로 증액되었다. 증액 이유는 카템폰타 도오루(Catem-ponto Ouro)와 벨라 비스타본(Bela Vista-Boane) 도로도 개선하기 위해서였는데 만기일은 20년 후였고, 이율은 4%였다. 모잠비크 정부의 빠른 상환을 돕기 위해 다리에 톨게이트를 4개 설치했다(#1240). ODA를 통한 사회간접시설 건설의 예는 이 외에도 많은데 이와 같이 이율이 있고 상환이 요구되는 경우, 중국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정치적인 동기만으로 제공된다고 할 수 없다. AidData의 자료에서 ODA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요구되는 사례는 1억 5천만 불의 농업, 보건 등의 투자(#1186), 국립 경기장(#1206), 및 3억불 상당의 마푸투 도로 건설(#30376), 4억 불의 도로 건설(#31066), 라디오 및 티비 공영방송을 위한 디지털화(#40730) 이외에도 다수가 있다. ODA 11개 중에서도 3개의 사례만이 무상원조였고 원조액 중 무상원조는 약 1천 7백만 불로 0.9%밖에 되지 않았다. 첸(2018)은 중국의 비양허적 원조는 “국가에 기반하며, 시장을 기반으로(state supported, market based)”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정부는 상품부채 대출 등으로 상환을 약속받고, 이윤에 기반하여 비양허적 원조를 제



공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아직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성장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라서 중국 정책은행들이 제공하는 비양허적 원조의 이자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 아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여 자국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반면, 중국의 비양허적 원조는 이자율이 이들 국가들 보다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다.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ODA 또한 조건 없는 지원보다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OOF는 10개 사례가 있었으며 모두 부채 조정을 통해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이므로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농업부분 원조

모잠비크의 북부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에 적합한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농경이 가능한 지역의 약 10%인 50,000 헥타르 정도의 땅만이 농업에 활용되고 있어 농업 개발의 잠재력이 높다(Chichava 2014). 이와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는 내전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설탕, 담배, 캐슈넛 등 일부 수익성 작물에 대한 재배만 이루어질 뿐,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원조는 모잠비크의 농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은 2006년에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농업기술팀을 파견하여 아프리카의 농업기술관들을 훈련시키는 등 농업 분야에도 다양한 원조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AidData의 모잠비크에 대한 중국 원조 자료 중 농업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10개로 그 중 8개가 ODA이며, 2개가 OOF를 통한 지원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농업을 위한 기술센터의 설립(#1192, #1215, #30377, #31128, #33905, #34539)과 농업 기술 교육(#1193), 농업에 필요한 자본금 제공(#1197, #1211, #3390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례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중국은 모잠비크에 농업기술시연센터(Agricultural Technology Demonstration

Centre)와 모잠바 기술공원(Moamba Technology Park) 등 총 7억 달러 규모의 농업기술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다(Jansson & Kiala 2009). 또한, 중국은 모잠비크의 중심부에 위치한 잠베지 계곡(Zambezi Valley)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보이며 2008년에 개발을 위하여 1,800만 달러의 차관을 이 지역의 농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은 모잠비크와의 2007년 협정을 통하여 가자 지역에 위치한 12,000 헥타르 규모의 샤이 샤이(Xai-Xai)에 대량의 쌀 수확을 위한 벼농사 기술을 전수해주시기도 하였다. 특히, 쌀 재배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내전 이후 피폐해진 모잠비크의 식량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농업 분야의 원조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모두 취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농업 분야 원조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관련되어 있다. 10개의 농업과 관련된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는 6개의 사례가 무상원조였으며, 4개가 유상원조에 속하였지만, 유상원조로 지원된 원조는 약 1.2억 불로 1,522만 불 지원된 무상원조에 비하여 대략 10배 정도 많다. 이러한 특성은 모잠비크에 대한 중국의 원조가 모잠비크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중국 원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서구 국가들의 원조들과 달리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잠비크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 원조를 통하여 모잠비크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중국은 농업 원조를 통하여 자국 내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자국 내 생산량만으로 자국민들의 식량을 충족할 수 없어 식량을 수입하는 식량 수입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중국은 2008년 이후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식량 관련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 내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모잠비크 역시 이러한 국가들 중 하나였으며,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한 모잠비크의 샤이 샤이 지방의 쌀은 대부분 중국 농부들에 의하여 경작되며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Bräutigam & Ekman 2012). 이와 같이 중국의 농업 원조는 정치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교육 원조

모잠비크는 1975년 독립 이후 최빈국에 속해왔으며, 2020년 유엔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측정국 전체 189개국 중 181위에 머물러 여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빈곤의 이유는 1976년부터 16년간 지속된 내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비효율적인 사회·경제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모잠비크는 내전 종결 이후 해외 원조의 주요 수혜국이였다. 교육 분야에 대한 해외 국가들 지원의 주된 목적은 문맹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두 자리수의 초등학교 재학률을 달성하는 것이었다(Njal 2012). 1980년 모잠비크 인구 73%가 글을 읽을 수 없었으나 2017년 문맹률은 39%로 감소하였으며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2006년 모잠비크 교육예산의 82%가 원조를 통해 제공되었다(Bilale 2007). 중국의 교육 원조는 FOCAC와 마카오 포럼(Macao Forum)을 기반으로 제공되었다. FOCAC는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선언을 시초로 3년마다 2018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FOCAC를 통해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로 약속했으며, 이는 농업, 교육, 인적자원양성, 보건, 안보, 에너지 분야를 포괄했다. 중국의 모잠비크 교육 원조 지원은 FOCAC의 6가지 교육 지원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1) 인적자원양성, 2) 고등교육 지원, 3) 지방 학교 건설, 4) 중국어 교육, 5) 중국 정부 장학금 제공, 6) 학자 및 학생 교류(Niu & Liu 2016). AidData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예술학교 건설(National School of Visual Arts(ENAV), #1220 ODA), 초등학교 건설(#22002 OOF, #34537), 공자학원(#31284, OOF) 설립, 2만 불 상당의 약기 기증(#1176 ODA), 무이자 대출(#1186 ODA) 등의 교육 지원이 있다. 예술학교 및 공자학원 설립은 인적 자원양성 및 고등교육 지원에 해당되며, 공자학원 설립은 중국어 교육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 확대의 목적에 해당한다. 마카오 포럼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8개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 논의를 위한 것이며, 모잠비크는 이에 해당되어 중국과의 교육 협력을 통한 경제 및 무역 교류의 증가를 위해 중국의 교육 지원을 받았다(Njal 2012). 중국이 교육지원을 중시한 것은 원조 정책상 수원국 인력 양성 및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원국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중국 유교주의가 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도 그 배경이다(Guo 2010). 또한 일본이 중국에 원조를 제공할 때 2000년 이후 인적자원 양성을 강조해서 중국이 교육 지원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Inada 2002; Okada 2008).

중국의 교육지원 정책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추구했으며, 자국의 경험을 토대로 고등교육 지원에 초점을 둔 것이 유엔의 새천년 계획과는 다른 점이었다. 중국은 10년간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고등교육 재학률이 초등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중국 정부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들과 함께 고등교육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지원 시, 기초 교육보다는 고등교육을 중시했다(Niu 2016). 그러나 지원 액수를 살펴보면, 사회간접시설이나 보건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지원되었다. 부채조정을 제외하고 약 77만 불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사회간접시설 지원의 3%에 미치지 못하며, 보건 지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모잠비크 교육 지원은 중국으로 유학가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고위급 인사 교육, 대학 간 교류, 중국어 교육, 교육 시설 지원 등이 있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00여 명의 모잠비크 학생들이 중국 장학금을 받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현재 264명의 모잠비크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모잠비크 주재 중국 대사는 모잠비크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100명의 전문직 인력에 대한 단기 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대학 간 교류의 예로는 2011년 에두아르두 몬들라누 대학(Eduardo Mondlane University)과 중국 절강사범대학교(浙江师范大学)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기로 했고, 중국 포산 대학교와 모잠비크 성토마스 대학교는 농업분야에 대한 협력을하기로 하였다(Njal 2012). 중국 정부는 2006년 이후 200개의 초등학교를 아프리카 지방에 건설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런 정책에 따라 모잠비크에 2개의 초등학교 및 기술학교 4개의 중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2010년까지 총 12개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2005년부터 모잠비크 정부는 중국어를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고려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은 대신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어 교육이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공자학원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마푸투 언어학교에서 중국어 교육 과정이 개설되었다.

중국 교육지원의 동기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에서 공부한 모잠비크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중국 정부 혹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중국 주재 외교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이 중국의 지원으로 배출된다면 중국 정부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가 가능하고 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모잠비크 인력과 일을 하는 것이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Njal 2012). 이러한 지원 동기는 중국의 직접적 경제 이익을 위해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정치적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AidData의 자료 중 교육 지원으로 분류된 5개 사례 중에서 ODA는 3개, OOF을 통한 지원은 2개의 사례가 있었으며 3개의 사례가 무상원조였다. ODA의 예로는 2006년 모잠비크 주재 주중대사 홍홍이 2만 불 상당의 악기 및 시청각 기기를 문화단체나 모잠비크 학교에 지원한 예가 있다. OOF의 예로는 2012년 중국과 모잠비크 교류에 도움이 될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이 모잠비크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인 에두아르두 몬들라누 대학(Eduardo Mondlane University)에 공자학원을 설립하여 중국어 전공자들을 다수 배출한 사례(#31284 OOF)와 초등학교 건설(#34537 OOF)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 원조는 ODA와 OOF을 통한 원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본 논문의 인과 관계 검정 결과처럼 OOF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 원조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소프트파워를 강화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Rickman 2020). 또한 보건 원조와 마찬가지로 수원국의 필요를 위해 무상원조를 통한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보건 원조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아프리카 보건 원조는 크게 증가하였고, 2006년 FOCAC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Guillon & Mathonnat 2019) 중국은 모잠비크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모잠비크는 내전 종결 후 연 8%의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삶의 질은 매우 낮았으며, 빈곤층의 보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HIV 감염률은 높았고, 평균 수명은 낮은 편이었으며, 결핵과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제한적이었고, 위생 상황이 좋지 않았다(Bruyn 2018). AidData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원조 중 보건원조는 전액 ODA로 지원되었고, OOF를 통한 지원은 없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모잠비크에 의사들을 파견(#758, #1230, #35668)하거나, 의사들이 거주할 숙소 건설(#31065)이나 병실 확장(#31064) 및 백내장 시술(#33863), 말라리아 예방약 기증(#1233), 160만 불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증하는(#30391) 등의 보건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은 모잠비크 정부가 제공해야 할 보건 시설이나 서비스가 중국 원조로 대체되는 경우 모잠비크 정부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모잠비크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idData의 자료 중 보건 원조 8개 사례 중 5개

는 무상재원 지원 3개의 무상 기술지원이 있었다. 보건 원조 총액은 약 2400만 불로, 사회간접시설에 약 30억 불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약 1%에 불과하고 ODA로만 지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건 원조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원국의 이익과 모잠비크와의 정치적 유대 강화를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Ⅶ. 결 론

본 연구는 중국 원조 결정요인을 모잠비크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중국 원조 제공의 동기는, OECD DAC 국가들의 원조 동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동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경제적 동기는 식량 및 석유나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필요성과 중국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이며, 정치적 동기는 대만의 고립을 지속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여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념적으로는 중국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것이다(Lengauer 2011).

드레허 외(2018)는 ODA는 정치적 동기로 배분되며 OOF는 경제적 동기로 배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ODA 또한 경제적 동기로 배분되기도 하고, OOF가 꼭 경제적 동기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드레허의 주장처럼 중국의 원조 배분이 이분법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경험적 분석이 자칫 편향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례연구 등의 질적연구를 통한 가설 검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드레허 외(2018)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의 대모잠비크 ODA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고려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OOF의 경우, 드레허 외(2018)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는 주장과 달리 모잠비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분야별 사례분석에서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중국 기업들은 모잠비크 사회간접시설 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주변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교역을 위한 운송 인프라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체 ODA 17억 불 중 무상원조는 0.9%에 불과하여 조건 없는 지원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농업 원조의 경우, 중국은 모잠비크에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해 주는 등 모잠비크의 식량 생산 상황

을 개선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주는 등 모잠비크의 이익을 고려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은 모잠비크에 제공한 쌀 기술을 통해 생산한 쌀을 다시 수입해 옴으로써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조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 원조의 경우, 사회간접시설 지원의 약 1%에 그쳤으며 전액 ODA로 지원되어 경제적 이익보다는 수원국의 이익 혹은 모잠비크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원조의 경우, 중국은 수원국의 인력 양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원국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했으며,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이 사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으로 지원되었다. 중국은 고등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었는데, 사회간접시설의 3%, 보건 분야와 비교하여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액수만이 지원되었으며, ODA와 OOF를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위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직접적인 경제이익 추구를 위해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적자금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 및 수원국의 필요를 위한 무상 원조가 대부분이었다. 모잠비크 사례는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ODA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보건과 교육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수원국의 필요 및 모잠비크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원되었음을 분야별로 원조의 목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는 2013년부터 추천되어 온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대륙이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2022년 10월 16일 출범한 시진핑 3기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Nyabiage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원조 배분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 본 연구는 추후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원조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모잠비크라는 단일국가를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의 ODA와 OOF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하여 진행되어 중국 원조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가장 큰 원조 제공국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중국의 원조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원조 제공 이유 또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원조와 수출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원조의 영향과 동시에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중국 수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조와 FDI 및 수출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현정, 박선화. 2016.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고찰과 변화전망.” 『중국법연구』 27, 229-251.
- 양동권, 정종필. 2020. “중국의 대외원조체계와 원조 효과성에 대한 연구: 국제사회의 원조레짐과 중국 대외원조 확대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2(3), 173-215.
- 이순학, 이홍식. 2012.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출을 진작시키는가?: 도구 변수를 이용한 분석.” 『국제경제연구』 18(3), 105-128.
- 이재영, 신정섭. 2020. “미국과 중국의 해외원조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UN 총회 투표에 미치는 영향.” 『국제정치논총』 60(1), 193-230.
- 정수나, 김영완. 2017.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 원조 결정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집』 48(1), 65-86.

### 영문 자료

- AidData. 2021. *AidData's Global Chinese Development Finance Dataset, Version 2.0*. <https://www.aiddata.org/data/aiddatas-global-chinese-development-finance-dataset-version-2-0> (accessed 24 December 2021).
- Albert, Eleanor. 2017. “China's Big Bet on Soft Power.”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s-big-bet-soft-power>. (accessed 2 October 2021).
- Alesina, Alberto &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 Amanor, Kojo S. & Sérgio Chichava. 2016. “South-South Cooperation, Agribusiness, and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Brazil and China in Ghana and Mozambique.” *World Development* 81, 13-23.
- Arvin, Mak & Christopher Baum. 1997. “Tied and untied foreign aid: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Keio Economic Studies* 34(2), 71-79.
- Baldwin, David. 1985.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ilale, Fernando Jorge Castaanheira. 2007. “Educational Performance in



- Mozambique: An Economic Perspective.” MA Thesis, University of Stellenbosch.
- Brant, Philippa. 2013. “Chinese Aid in the South Pacific: Linked to Resources?” *Asian Studies Review* 37(2), 158-177.
- Bruyn, Tom De. 2018. “Analysing South-South Capacity Building. Comparing Six Flagship Projects of Brazil, India and China in Mozambique.”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46(2), 249-275.
- Bräutigam, Deborah. 2011. “Ai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hinese Foreign Aid and Development Finance Meet the OECD-DAC Aid Regim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3(5), 752-764.
- \_\_\_\_\_ & Sigrid-Marianella Stensrud Ekman. 2012. “Briefing Rumours and realities of Chinese agricultural engagement in Mozambique.” *African Affairs* 111(444), 483-492.
- \_\_\_\_\_ & Kevin P. Gallagher. 2014. “Bartering Globalization: China’s Commodity-backed Finance in Africa and Latin America.” *Global Policy* 5(3), 346-352.
- Biddick, Thomas V. 1989. “Diplomatic Rivalry in the South Pacific: The PRC and Taiwan.” *Asian Survey* 29(8), 800-815.
- Bosten, Emuny. 2010. “China’s Enga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Southern Africa: The Case of Mozambique.” Asian and Other Drivers of Global Change Workshop, 19-21.
- Butts, Kent Hughes & Brent Bankus. 2009. “China’s Pursuit of Africa’s Natural Resources.” *CSL Issue Paper* 1(9), 1-14.
- Carter, Becky. 2017. “A Literature Review on China’s Aid.” *K4D Helpdesk Report*.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Corkin, Lucy Jane. 2014. “China’s rising Soft Power: The Role of Rhetoric in Constructing China-Africa Relations.” *Revista Brasileira de Política Internacional* 57, 49-72.
- Correia, Cláudia Gilda do Amaral Aranda. 2010. “Modelo de cooperação da china para África: análise de um estudo de caso em moçambique.” MA Thesis, ISCTE/IUL, Lisbon.
- Cheng, Hong, Ruixue Jia, Dandan Li & Hongbin Li. 2019. “The Rise of Robots in Chin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2), 71-88.

- Chaudhury, Dipanjan Roy. 2021. "Hydrocarbon rich Mozambique a future military base for China?" *The Economic Tim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hydrocarbon-rich-mozambique-a-future-military-base-for-china/articleshow/86250224.cms> (accessed 30 October 2021).
- Chen, Muyang. 2018. "Official Aid or Export Credit: China's Policy Banks and the Reshaping of Development Finance." GCI Working Paper 001, 3.
- Chichava, Sérgio, Jimena Duran, Lídia Cabral, Alex Shankland, Lila Buckley, Tang Lixia & Zhang Yue. 2013. "Chinese and Brazilian Cooperation with African Agriculture: The Case of Mozambique." CBAA Working Paper 047, 1-31.
- Chichava, Sérgio. 2014. "Chinese Agricultural Investment in Mozambique: The Case of The Wanbao Rice Farm." SAIS-CARI Policy Brief, 2.
- Dominguez-Torres, Carolina & Cecilia Briceno-Garmendia. 2011. *Mozambique's Infrastructure: A Continental Perspective.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AICD) country report*.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Dreher, Axel & Andreas Fuchs. 2015. "Rogue aid? An empirical analysis of China's aid alloc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8(3), 988-1023.
- 
- \_\_\_\_\_, Brad Parks, Austin M. Strange & Michael J. Tierney. 2018. "Apples and Dragon Fruits: The Determinants of Aid and Other Forms of State Financing from China to Africa." *University of Heidelberg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620, 182-194.
- Guillon, Marlène & Jacky Mathonnat. 2019. "Is there a strategy in China's healt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African Countries?" *Revue d'Economie Politique, Dalloz* 129, 619-660.
- Guo, Qijia. 2009. *A history of Chinese educational thought*.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Gujarati, Damodar N. 2004. *Basic Econometrics, 4th ed.* New York: Tata McGraw Hill.

- Hebert, James. 2018. "China Railway proposes Zimbabwe–Mozambique rail link." *IJGlobal*. <https://www.ijglobal.com/articles/134773/china-railway-proposes-zimbabwe-mozambique-rail-link> (accessed 26 November 2021).
- Hoeffler, Anke & Verity Outram. 2011. "Need, Merit, or Self-Interest — W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Aid?"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5(2), 237-250.
- Inada, Juichi. 2002. "Japan's ODA: Its Impacts on China's Industrialization and Sino-Japanese Relations." in *Japan and China: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edited by H. G. Hilpert and R. Haak, 121-139. NY: Palgrave.
- Jansson, Johanna & Carine Kiala. 2009. "Patterns of Chinese Aid, Investment and Trade in Mozambique." University of Stellenbosch, Centre for Chinese Studies.
- Kobayashi, Takaaki. 2008. "Evolution of China's Aid Policy."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itute NO. 27.
- Lengauer, Sara. 2011. "China's Foreign Aid Policy: Motive and Method." *Culture Mandala: The Bulletin of the Centre for East-West Cultural and Economic Studies* 9(2), 35-81.
- Lloyd, Tim, Mark McGillivray, Oliver Morrissey & Robert Osei. 2000. "Does aid create trade? An investigation for European donors and African recipients." *European Journal Development Research* 12(1), 107-123.
- Manning, Richard. 2006. "Will 'Emerging Donors' Change the Fa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Policy Review* 24(4), 382-384.
- Naim, Moisé. 2007. "Rogue Aid." *Foreign Policy* 159, 95-96.
- Neumayer, Eric. 2003. "Do Human Rights Matter in Bilateral Aid Allocation? A Quantitative Analysis of 21 Donor Countries." *Social Science Quarterly* 84(3), 650-666.
- Niu, Zhongguang. 2016 "China's development and its aid presence in Africa: A critical refl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anthropology."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51(2), 199-221.
- Noh, Bobae & Almas Heshmati. 2017. "Do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ffect Donor's Export? Case of Korea." GLO Discussion

Paper Series 9.

- Norris, William. 2016. *Chinese Economic Statecraft: Commercial Actors, Grand Strategy, and State Control*.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Njal, Jorge. 2012. “Chinese Aid to Education in Mozambique.” Instituto De Estudos Sociais Economicos Conference Paper.
- Nyabiage, Jevans. 2022. “Continuity and caution key to China-Africa ties in Xi Jinping’s third term.”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96940/continuity-and-caution-key-china-africa-ties-xi-jinpings-third-term> (accessed 18 November 2022).
- Okada, Minoru. 2008. *Japan-China Relationship and ODA: Introduction to History of Political Diplomacy about Japan’s ODA to China*. Tokyo: The Duan Press.
- Osei, Robert, Oliver Morrissey & Tim Lloyd. 2004. “The nature of aid and trad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6(2), 354-374.
- Suwa-Eisenmann, Akiko & Thierry Verdier. 2007. “Aid and trad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3(3), 481-507.
- Roque, Paula Cristina. 2009. “China in Mozambique: A Cautious Approach.”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No. 23.
- Rickman, Ari. 2020. “Can Mozambique Learn to Love Chin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0/02/can-mozambique-learn-to-love-china/> (accessed 25 September 2021).
- Shambaugh, David. 2015. “China’s Soft Power Push: The Search for Respect.” *Foreign Affairs* 94(4), 99-107.
- Tajoli, Lucia. 1999. “The Impact of Tied Aid on Trade Flows between Donor and Recipient.”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Review* 8(4), 373-388.
- Tang, Lixia, Jiewen Ma & Xiaoyun Li. 2013. “China’s Foreign Aid -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8(4), 11-28.
- Trading Economics. “Mozambique Exports to China.” 2022. <https://tradingeconomics.com/mozambique/exports/china> (accessed 24 December 2021).

- Trumbull, William & Howard Wall. 1994. "Estimating Aid-Allocation Criteria with Panel Data." *The Economic Journal* 104(425), 876-882.
- Wagner, Don. 2003. "Aid and trade –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Economies* 17(2), 153-173.
- Wang, Hejun. 2020. "China-Mozambique cooperation yields numerous benefits." *Global Times*.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06694.shtml> (accessed 29 August 2021).
- Xu, Jiajun. 2017. "Market Maker: The Role of China Development Bank in Incubating Market." *Man and the Economy* 4(2), 4.
- Younas, Javed. 2008. "Motivation for bilateral aid allocation: Altruism or trade benefi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4(3), 661-674.

Abstract

## The Determinants of Chinese Foreign Aid: Case of Mozambique

Yoo Seong Hun ■ Yonsei University

Taewoo Lim ■ Kyonggi University

Yiyeon Kim ■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factors China's foreign aid allocation affected based on the case of Mozambique. Dreher et al.(2018), the most pioneering research on Chinese aid argue that China's foreign policy interests determine its alloc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lows and that economic considerations determine less concessional forms of official financing (Other Official Flows, OOF). However, existing studies examining the factors of aid allocation in Western donor countries show a mixture of factors such as donors' interest and recipients' develop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rough the Mozambique case, China's aid is also allocat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Utiliz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we find that while ODA flows affect exports from China to Mozambique, exports do not cause ODA. In terms of OOF, the argument of Dreher et al.(2018) was not supported. OOF is not distributed according to economic purpose. Investigating aid to the agriculture, social infrastructure, health, and education sectors, this study shows that aid is distributed for different purposes depending on the sector.

Key Words: Chinese Aid, Aid Allocation, Mozambique, Granger Causalty test